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1년 1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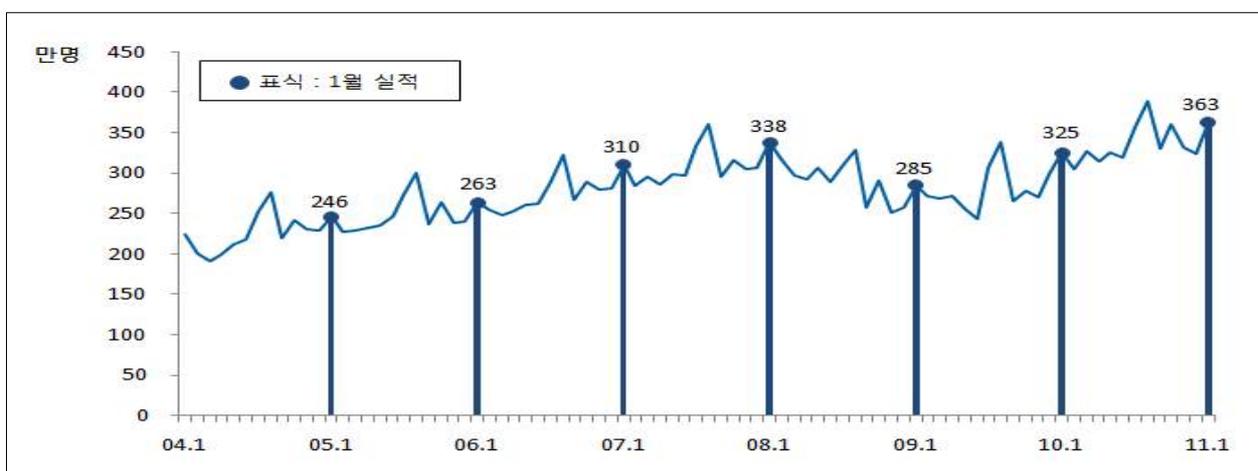
2011년 1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 ❖ 겨울방학 등의 성수기효과, 원화강세로 인한 지속적인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여객이 전년대비 11.7%증가, 항공화물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8%로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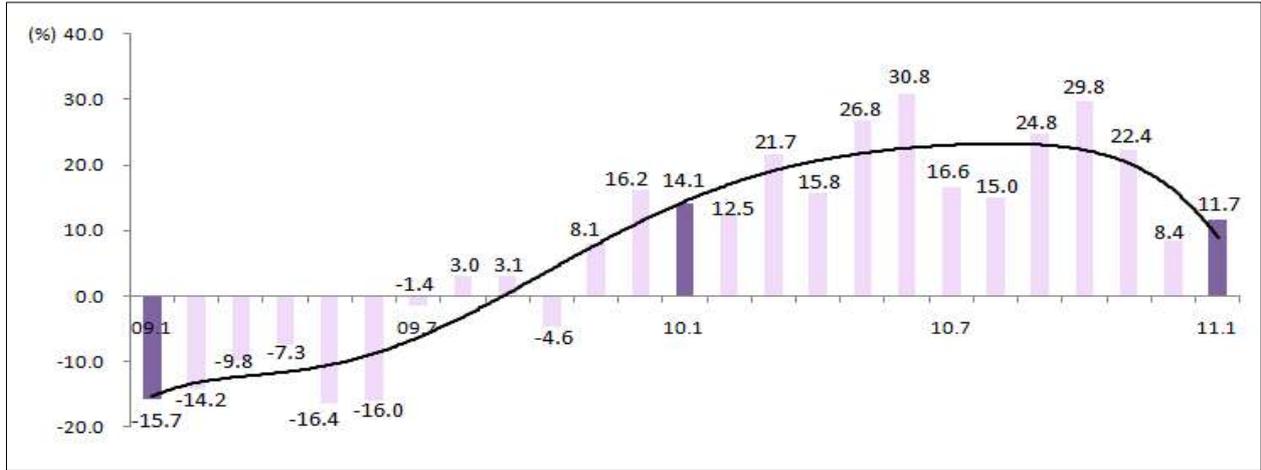
국제여객

2011년 1월 국제여객은 겨울방학 등의 성수기효과, 경기회복 및 원화강세로 인한 여행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한 3,627,780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2008년 1월 3,379,996명보다 7.3% 높은 실적으로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이었고, 2010년 7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림 1〉은 최근 8년간 국제여객 실적추이를 나타내어준 그래프이며, 〈그림 2〉는 최근 4년간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추이를 나타내어 준 그래프이다.



〈그림 1〉 국제여객 실적추이



〈그림 2〉 국제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표 1〉은 공항별 국제여객실적을 정리한 표로, 전국 공항의 국제여객실적은 전년대비 평균 11.7% 상승하였다. 특히 노선 신·증편, 부정기노선 전세기 운항 증가 등으로 지방공항의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청주공항은 오사카, 홍콩, 방콕 정기노선 외에 부정기노선 전세기를 운항함으로써 전년대비 220.1% 대폭 증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무안공항은 컨티넨탈항공(괌), 베트남항공(베트남), 에어마카오항공(마카오)이 1월 신규국제노선을 취항하고 상하이노선을 증편 운항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표 1〉 공항별 국제 여객실적

(단위 : 명)

공 항	인 천	김 포	김 해	제 주	대 구	청 주	무 안
'10년 1월	2,689,887	248,186	250,619	38,679	8,783	6,798	6,010
'11년 1월	2,964,248	279,878	301,240	32,540	15,037	21,760	13,077
전년대비	10.2%	12.8%	20.2%	-15.9%	71.2%	220.1%	117.6%

〈표 2〉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여객실적을 나타내어 준 것으로, 일본·대양주를 제외한 노선이 증가세를 지속하여 전년대비 평균 10.2%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한파의 영향으로 방콕, 세부, 푸켓, 쿠알라룸푸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동남아노선이 전년대비 17.9% 증가하였고, 겨울방학 등으로 인한 장거리노선 수요증가 등으로 미주노선은 전년대비 12.6% 증가, 유럽노선은 전월대비 18.4% 증가하여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표 2〉 인천공항 노선별 여객실적

(단위 : 명)

노 선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기 타
'10년 1월	569,636	695,569	726,713	355,513	157,800	78,352	106,304
'11년 1월	533,442	804,932	857,151	400,132	164,594	72,503	131,494
전년대비	-6.4%	15.7%	17.9%	12.6%	4.3%	-7.5%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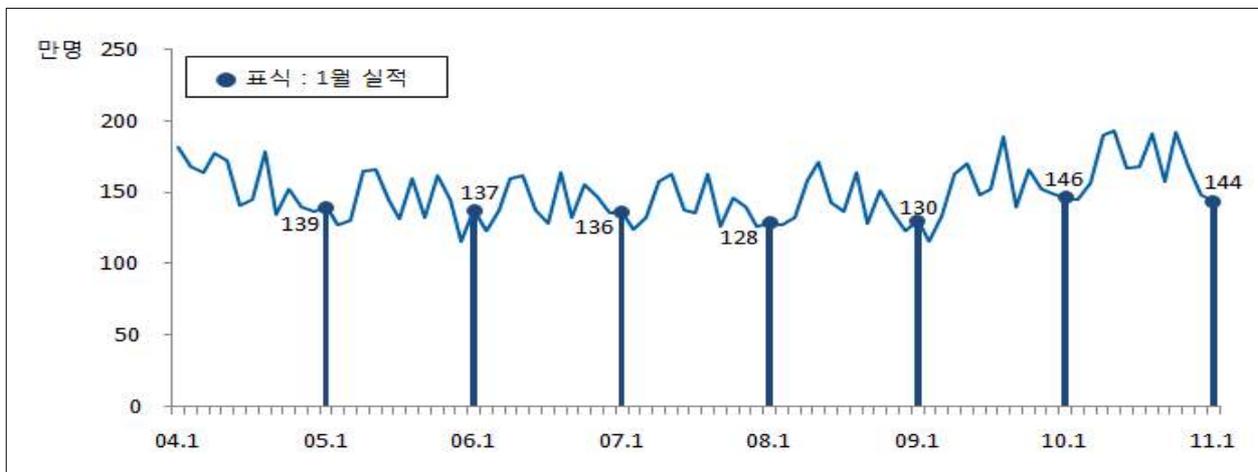
인천공항의 환승여객¹⁾은 직항여객 증가, 일본 하네다공항 허브화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남아·미주노선의 증가로 전년대비 1.8% 증가, 전월대비 16.5% 증가하였고, 환승률은 전월대비 0.6%p 증가, 전년대비 -1.3%p 감소한 15.7% 기록하였다.

1) 환승여객 월별추이 : 42만명('10.11) → 40만명('10.12) → 47만명('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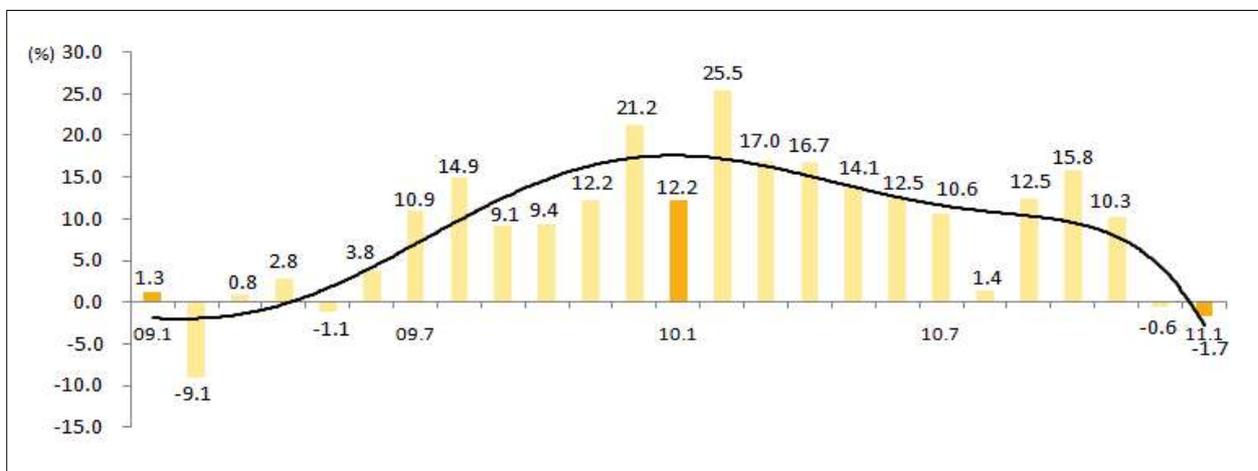
환승률 월별추이 : 15.6%('10.11) → 15.1%('10.12) → 15.7%('11.1)

국내여객

1월 국내여객은 폭설, 한파 등의 기상악화, 지방공항의 운항감소(-1.7%) 등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한 1,436,730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지난해 다양한 국제행사 등으로 운항을 일시적으로 증편하였던 지방공항들이 운항을 감편하고, KTX 2단계 개통,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항공여행수요가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 국내여객 실적추이



〈그림 4〉 국내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표 3〉은 1월 국내여객실적을 공별로 살펴본 것으로 KTX 2단계 개통, 노선폐지 등의 영향으로 무안·울산·포항공항의 여객실적이 전년대비 30%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

KTX 2단계 개통이후 김해공항의 경우 기타 지방공항에 비해 영향을 미미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김해공항은 운항이 전년대비 -0.7% 감소, 여객이 -1.2% 감소 하였으나 기타 지방공항의 감소세에 비해 실적이 좋은 편이었고, 이는 에어부산이 운임할인, 기업우대할인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승객을 위한 셔틀 운행 등으로 적극적으로 여객확보에 앞장서고 KTX의 구포역 정차횟수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기존 구포역 이용자들이 항공을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표 3〉 공항별 국내선여객실적

공항	운항			여객		
	'10년 1월	'11년 1월	전년대비	'10년 1월	'11년 1월	전년대비
김포	4,132	4,116	-0.4%	486,405	496,360	2.0%
김해	1,626	1,614	-0.7%	186,890	184,724	-1.2%
제주	3,914	3,858	-1.4%	538,931	532,441	-1.2%
대구	294	282	-4.1%	38,293	37,061	-3.2%
광주	422	442	4.7%	50,940	47,936	-5.9%
청주	367	310	-15.5%	45,543	45,160	-0.8%
울산	368	347	-5.7%	41,164	25,967	-36.9%
여수	229	249	8.7%	25,346	27,293	7.7%
무안	25	7	-72.0%	557	203	-63.6%
사천	93	80	-14.0%	6,577	5,325	-19.0%
포항	149	126	-15.4%	12,778	8,848	-30.8%
군산	54	52	-3.7%	6,680	6,152	-7.9%
원주	26	28	7.7%	2,504	2,647	5.7%

1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내여객수송량은 전년대비 1.2배 증가한 586,481명이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운항이 전년대비 -7.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여객실적은 전년대비 37.7% 증가함으로써 매우 좋은 실적을 나타내었다. 1월 저비용항공사의 분담율은 40.8%로 전년대비 6.2%p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2011년 1월은 혹한, 폭설 등으로 제주 여행수요 감소하여 제주노선 실적이 전년대비 -0.1% 감소하여 감소세를 보였다. 내륙노선 또한 전년대비 -5.8%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국내여객수요가 감소세를 보인 점을 알 수 있다. 탑승률은 제주노선, 내륙노선 모두 전년대비 약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제주 및 내륙노선의 국내여객실적

	'10년 1월	'11년 1월	전년대비
제주노선	1,048,038 (73.9%)	1,047,419 (70.7%)	-0.1%
내륙노선	413,170 (60.9%)	389,311 (57.2%)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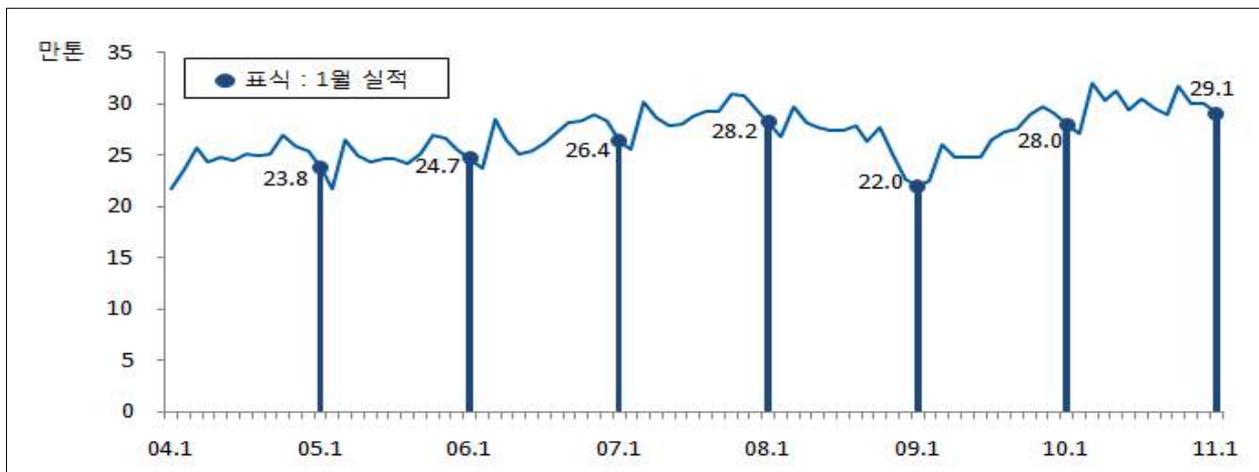
*()안은 탑승률 수치임

항공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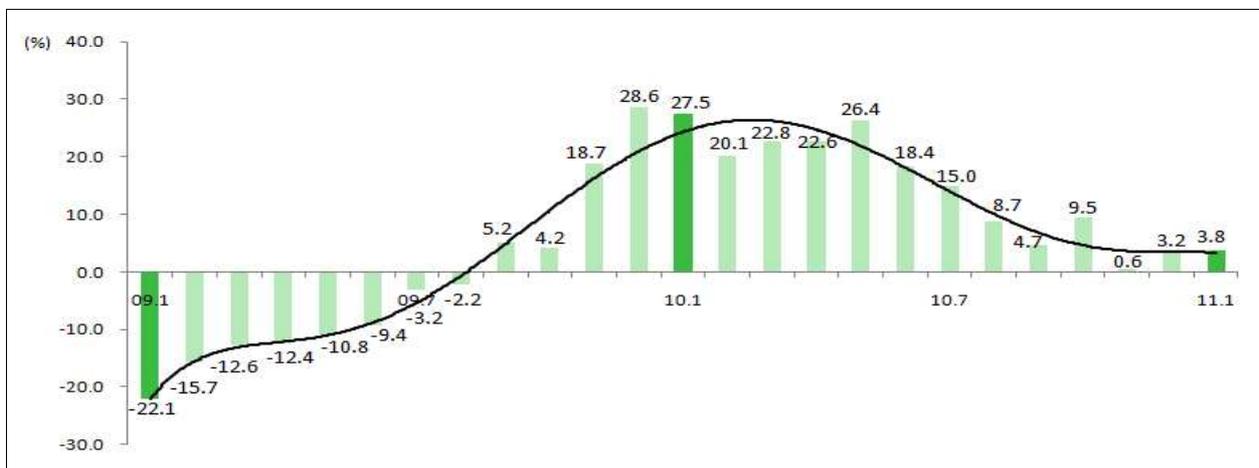
경기침체기 이후 급반등 추세를 보인 항공화물 수요 성장세는 기저효과로 인하여 2010년 4/4분기 다소 둔화되었으나 12월 이후 국제 화물시장의 증가세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에 힘입어 1월 전년대비 3.8% 증가한 290,667톤을 달성하였다. 이는 2008년 1월(282,058톤)대비 3.1% 증가한 실적으로 1월 기준 역대 최고실적이었다.

세부적으로 국제화물은 항공운송의준도가 높은 IT 관련 제품과 자동차부품 등의 수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5.3% 증가, 2008년 대비 4.8% 증가한 270,911 톤을 달성하였다.

국내화물의 경우 김포·김해·청주공항의 국내화물 수송량이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체 국내화물 수송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제주공항이 전년대비 -31.6% 감소하는 등 전국공항이 전년대비 -12.7% 감소, 전월대비 -2.9% 감소한 19,756톤을 달성하였다.



〈그림 5〉 항공화물 실적추이



〈그림 6〉 항공화물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표 5〉 인천공항 노선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노 선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0년 1월	31,325	68,405	46,357	55,517	35,709	3,189	7,232
'11년 1월	30,169	71,475	49,520	57,241	38,150	3,192	9,770
전년대비	-3.7%	4.5%	6.8%	3.1%	6.8%	0.1%	35.1%
전월대비	-10.7%	-0.7%	2.3%	-3.2%	-9.7%	-12.7%	-3.9%

위의 <표 5>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화물실적을 나타내어준 표로, 일본을 제외한 전 노선이 증가세를 유지하여 평균 6.0% 증가하였다. 동남아노선의 경우 전년대비 6.8% 증가하였고, 유일하게 전월대비 (+) 성장을 보였다. 일본노선의 경우 전월대비 -10.7% 감소, 전년대비 -3.7% 감소함으로써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미주·유럽노선은 전년대비 (+) 성장을 보였으나 전월대비 (-) 성장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월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92,854톤으로 전월대비 -8.1% 감소,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향후 수요전망

- ❖ (여객) 1월 여객은 겨울방학 등의 성수기효과, 경기회복 및 원화강세 등으로 내국인 여행수요가 증가하여 국제여객이 역대 1월중 최대실적을 기록. 2월에도 장기간의 구정연휴 등으로 내국인 출국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관광객 유입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여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화물) 지난 12월부터 국제화물의 증가세가 다시 강화되어 역대 1월중 최대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월에는 장기간의 연휴로 인한 IT제품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 기저효과 등으로 수송량이 다소 감소하는 듯 보일 것 예상. 그러나 북미 자동차 생산증가 및 EU FTA로 인한 수입화물 증가 등으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